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 플라톤과 퇴계 이황의  
비교

제주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우장민

2022년 1월



#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 플라톤과 퇴계 이황의 비교

지도교수 박 수 인

우 장 민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우장민의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월



Political Reform Initiated from the Cultivation of  
Virtues: A Comparison between Plato and Yi Hwang

Jangmin Woo  
(Supervised by professor Sooen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olitical Science

2022. 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차

국문초록 .....	II
<b>1장. 서론</b> .....	<b>1</b>
1절. 문제제기 .....	1
2절. 기존연구 검토 .....	2
3절. 논문의 구성 .....	4
<b>2장. 플라톤: 지혜를 통한 법치의 실현</b> .....	<b>4</b>
1절. 도덕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	5
2절. 덕성 교육, 철학 교육 .....	8
3절. ‘최선의 법’에 따른 ‘법치’ .....	12
<b>3장. 퇴계 이황: ‘인(仁)’과 ‘효(孝)’를 조합한 통치모델</b> .....	<b>15</b>
1절. ‘인(仁)’한 치자와 ‘효(孝)’를 실천하는 피치자 .....	15
2절. ‘거경궁리(居敬窮理)’와 ‘효(孝)’ 사상 .....	19
3절. 군신의 권력분립, 국가와 지방의 상호존중 .....	24
<b>4장. 플라톤과 퇴계 이황의 비교</b> .....	<b>28</b>
1절. 이상적인 인간 .....	28
2절. 수양 방법 .....	29
3절. 이상의 현실적 구현으로서의 통치모델 .....	31
<b>5장. 결론</b> .....	<b>32</b>
참고문헌 .....	34
영문초록 .....	39

##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 플라톤과 퇴계 이황의 비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플라톤의 『국가』, 『프로타고라스』, 『편지들』과 퇴계 이황의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성학십도(聖學十圖)』, 『향입약조(鄉立約條)』를 통해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의 모습을 살펴보고 플라톤과 퇴계를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플라톤과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계층에 알맞은 덕목을 제시한다. 플라톤은 치자를 철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철학적 지혜를 습득해야 한다고 본다. 피치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절제에 있어야 한다. 철인 통치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가 나타난다. 치자와 피치자 각자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되, 지혜로운 치자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질서 있는 국가가 형성된다. 플라톤은 법치로 자신의 이론을 실현하고자 한다. 법치에서는 피치자들을 교화하여 법률을 간소화한다. 치자들은 모범이 되고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가진다. 치자와 피치자 모두 법을 존중하여 이상적인 통치모델을 유지한다. 퇴계는 치자를 ‘성인(聖人)’으로 설정하고 ‘인(仁)’을 습득해야 한다고 봤다. 피치자들은 ‘효(孝)’를 통해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인’한 정치를 구현할 ‘성군(聖君)’은 자신이 모범이 되어 ‘효’를 실천하는 피치자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권력과 피치자들의 자발적인 규범이 상응한다. 치자들은 권력을 분립하고 직무 윤리를 준수하며, 피치자들은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을 준수하고 국가의 법집행을 존중할 때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플라톤과 퇴계를 비교하자면, 치자와 피치자 모두 덕성을 함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게 했으며, 정치개혁으로 국가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자 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점도 나타난다. 플라톤은 피치자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성찰을 강조했다. 퇴계는 피치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규범을 강조했다.

【주제어: 이상적인 인간, 덕성 함양, 정치개혁, 플라톤과 퇴계 이황의 비교】

## 1장. 서론

### 1절. 문제제기

플라톤의 고대 그리스, 퇴계의 조선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구성원들의 폭주와 정국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플라톤과 퇴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플라톤과 퇴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덕성 함양을 통해 도덕적으로 변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플라톤과 퇴계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치자와 피치자로 구분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덕목을 제시한다. 이 덕목들은 층위가 구분되면서 우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 질서를 갖춘 공동체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정치는 권력의 폭주를 방지한다. 또한 국가와 그 구성원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기술이 되며 통치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 올바른 정치는 각각 법치와 군신의 권력분립·국가와 지방의 상호존중이라는 이상적인 통치모델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통치모델은 다시 인간을 교육하면서 안정적인 정국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플라톤과 퇴계는 상당히 유사한 인물이 된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에서 대중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도덕적 지혜를 가르치고자 했다. 『국가』에서는 치자들이 올바르게 통치할 철학적 지혜와 철인통치를 제시한다. 플라톤은 『일곱째 편지』 324b에서 지혜가 집약된 ‘최선의 법’에 따른 ‘법치’를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설정하여 철인통치를 현실화하고자 했다. 즉 절제와 지혜가 조화된 법치라는 통치모델을 확립한 것이다. 한편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거경궁리(居敬窮理)에 따른 덕성 함양을 통해 인간이 ‘경(敬)’에 머물면서 ‘인(仁)’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치자들에게는 ‘효(孝)’를 강조하여 공동체를 도덕적인 모습으로 유지하고 질서에 있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의 5조목과 6조목에서 ‘인(仁)’에 의한 군신의 권력분립과 도덕의 회복을 구상했다. 또한 『향입약조(鄉立約條)』를 통해 국가의 통치에 상응할 규정을 정하고 지방의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즉 퇴계는 ‘인’이라는 덕목을 강조하여 치자에게 군신의 권력분립을 제시하는 한편, ‘효’를 통해 치자의 통치에 상응할 도덕적인 피치자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과 퇴계는 한편으로 고대 그리스와 조선이라는 상이한 시대적 배경, 다른 한편으로 민주정과 군주정이라는 상이한 제도적 배경의 영향하에서 사유했다. 우선 플라톤은 아테네가 가진 민주정의 특성에 따라 수양과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들을 ‘주체’로 바라봤다. 그러나 퇴계는 군주정인 조선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피치자들을 수양과 정치 참여의 주체로 바라보는 대신 일

종의 ‘대상’으로 봤다. 즉 ‘민주(民主)’와 ‘민본(民本)’<sup>1)</sup>에서 기인한 차이이다.

본 연구는 플라톤과 퇴계의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플라톤과 퇴계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유사점·차이점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 2절. 기존연구 검토

플라톤과 퇴계 혹은 플라톤과 공자를 비교한 연구는 많다. 이를테면 철인왕과 성군의 자질이나 철인왕과 성군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 신귀현(2001)은 플라톤과 퇴계의 철인왕과 성군의 자질, 교육과정, 정책,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그러나 신귀현(2001)은 철인왕과 성군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도출에 집중하면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실행하는 올바른 정치,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론이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강선보·장지원(2007)은 공자의 『논어(論語)』,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타난 교육의 목적 가운데 이상적인 인간의 형성, 이러한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와 ‘인’ 같은 덕목을 비교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을 받는 주체가 도덕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의 지속을 강조하여 성군과 철인왕 같은 통치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을 통치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시키면서 교육과 이상적인 통치자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재영(2000)은 서양의 질서를 구축한 플라톤의 철인왕과 동양의 질서를 구축한 공자의 성인을 비교한다. 이재영(2000)은 플라톤의 철인 양성을 위한 철학 교육과 공자의 성인 양성을 위한 수양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발전과 정치의 발전을 연결시킨다. 특히 플라톤과 공자가 가진 지역,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에 최병철(1989)과 같이 국가의 구조, 정의의 개념과 구현 등의 관점에서 공자와 플라톤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최병철(1989)은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공자의 왕도정치의 성립을 위한 정의를 제시했다. 플라톤의 정의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자의 정의는 ‘인’의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 최병철(1989)의 연구는 정의와 올바른 국가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인간의 수양이 국가의 정의의 확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小野進(2010·2011)는 성리학, 양명학, 고학 등 유교 일반의 정의와 국가관에

1) 이재룡(2000)은 ‘민본’을 ‘민주’와 구분한다. 치자들은 천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치자들은 백성을 질서 유지의 대상으로 보고 여기서 ‘민본’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애’와 ‘효’ 같은 인간 관계의 발전과 도덕적인 국가관을 예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천하의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의사를 통일하기 위한 군주정이 중요시된다.



따른 올바른 국가의 형성을 논의한다. 유교의 종교적인 성격에서 시작되는 정치 철학, 하늘에서 비롯되는 정의 등이 주로 다뤄진다. 그러나 小野進(2010·2011) 역시 정의의 개념이나 국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이 정의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는지, 이것이 인간의 덕성 함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신복룡(2010)과 같이 조선의 주리론자(主理論者)들이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을 교화하고자 시도한 것을 살펴본 연구도 있으나, 성리학이 가진 수양의 성격보다 정치의 목적, 통치구조의 논의에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덕성 함양이나 올바른 정치, 국가관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에 집중한다. 따라서 플라톤과 퇴계의 저술들을 관통하는 주요 문제의식인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플라톤과 퇴계의 철인왕과 성군에 논의를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플라톤과 퇴계가 올바른 정치의 현실화를 위해 구상한 법치와 군신의 권력분립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철인왕과 성군은 올바른 정치를 실행할 훌륭한 인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철인왕과 성군은 현실에 등장하기 어려운 존재이며,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과도한 편중이나 체제와 인물의 타락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편중과 인물의 타락은 특정 계층의 구성원들을 폭주하게 하고, 훌륭한 것을 제시하지 못해 구성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게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플라톤과 퇴계가 제시한 덕목과 이상적인 인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플라톤과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위치에 알맞은 철학적 지혜와 도덕적 지혜, ‘인(仁)’과 ‘효(孝)’를 제시한다. 이러한 덕목들은 각각 치자와 피치자에게 부여되지만 서로 유기적이며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 즉 치자의 철학적 지혜·‘인’이 피치자의 도덕적 지혜·‘효’를 인도하되, 피치자의 도덕적 지혜·‘효’가 치자의 철학적 지혜·‘인’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은 치자가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피치자는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이 덕목과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수양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양 방법 역시 두 층위로 나타난다. 플라톤의 철학적 지혜는 철학 교육으로, 도덕적 지혜는 단일화된 덕을 통한 삶의 성찰로 구체화된다. 퇴계의 ‘인’은 ‘거경궁리(居敬窮理)’, ‘효’는 ‘효’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플라톤과 퇴계가 구상한 정치개혁으로도 이어진다. 치자는 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권유하는 것을 통해 피치자를 교화하고, 화합하여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한다. 플라톤과 퇴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자 법치, 군신의 권력분립·국가와 지방의 상호존중이라는 통치모델을 제시한다. 현실적 이상으로서의

이 같은 통치모델은 특정 권력의 폭주를 억제하고, 구성원들을 교화하여 안정적으로 정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연구 문제로 첫째, 플라톤과 퇴계의 덕목과 이상적인 인간을 치자·피치자라는 층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 플라톤의 철학 교육·덕성 교육, 퇴계의 ‘거경궁리’, ‘효’ 사상을 통한 수양의 방법을 살펴본다. 셋째, 플라톤과 퇴계가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제시한 최선의 법에 따른 법치와 군신 권력분립을 살펴보고, 이것이 다시 인간의 덕성 함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살펴본다. 넷째, 플라톤과 퇴계가 논의한 인간의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을 비교하여 유사점·차이점을 도출한다.

플라톤의 『국가』, 『프로타고라스』, 『편지들』, 퇴계의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성학십도(聖學十圖)』, 『향입약조(鄉立約條)』와 같은 1차 자료와 연구 서적, 논문과 같은 2차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3절.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플라톤을 다룬다. 1절에서 피치자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혜, 치자들에게 중요한 철학적 지혜를 살펴본다. 2절에서 ‘덕의 단일성’과 이러한 덕의 교육 가능성에 따른 피치자들의 ‘덕성 교육’을 살펴보고, 치자들의 철학적 지혜를 함양하기 위한 철학 교육을 살펴본다. 3절에서 피치자들이 덕성을 유지하고, 치자들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도록 하는 통치모델로써 ‘최선의 법’에 따른 ‘법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퇴계 이황을 다룬다. 1절에서 유교의 이상향인 ‘인(仁)’의 구현을 위한 ‘성인(聖人)’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퇴계가 피치자들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효(孝)’를 살펴본다. 2절에서 조선의 치자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양의 방법론으로서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살펴본다. 피치자들을 훌륭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효(孝)’ 사상을 살펴본다. 3절에서 퇴계가 권력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통치모델인 군신의 권력분립, 지방의 피치자들이 이에 상응하기 위해 확립한 『향입약조(鄉立約條)』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플라톤과 퇴계 이황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분석의 기준을 설정한다. 1절에서는 이들이 설정한 이상적인 인간과 추구해야 할 덕목을 논의한다. 2절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의 방법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난 통치모델, 즉 법치와 군신의 권력분립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현대의 우리가 플라톤과 퇴계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논의하고 결론을 정리한다.

## 2장. 플라톤: 지혜를 통한 법치의 실현

### 1절. 도덕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인간을 이상적으로 만드는 덕목인 플라톤의 지혜는 피치자인 대중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지혜와 치자들에게 필요한 철학적 지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프로타고라스』에 나타난 도덕적 지혜를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프로타고라스님,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산다고 이야기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한다(351b~c). 프로타고라스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훌륭한 것들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경우를 잘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크라테스는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인지, 고통스러우면 나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이면에 좋음과 나쁨이 있다고 답변한다. 소크라테스는 ‘즐거움’ 자체가 ‘ 좋음’인 것인지 확답을 받고자 프로타고라스에게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다시 질문한다(351d~e).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는 ‘즐거움’과 ‘ 좋음’이 다른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대중들은 앎이 아니라 화, 즐거움, 괴로움, 사랑,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지배당한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중들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크기로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크기가 기준이 된다면 대중들이 강한 쾌락에 지는 것이 당연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선택할 때 지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지혜가 인간의 행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충동적이며 무분별한 즐거움 대신 질적으로 정제된 즐거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Gagarin(1969), Stocks(1913)는 소크라테스가 당장의 쾌락 대신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즐거움과 좋음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프로타고라스에게 질문했다고 본다. 이러한 도식적인 구분이 대중을 계도할 유인책으로 작동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이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앎이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합의한다. 그들의 입장(352a~d)에 따르면, 대중들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쾌락에 굴복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경험(352e)”은 스스로의 삶을 타락시킨 것이며, ‘즐거움’과 ‘ 좋음’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무지한 상태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즉 당장의 즐거움이 나중에 나쁜 것들을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즐거움에 굴복하는(353c~e) 무지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좋은 것, 괴로움을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한다. 또한 즐거움 자체도 나쁜 경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빼앗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괴로움 자체를 해방시키거나 괴로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초래할 때 괴로움을 좋다고 한다(354a~e). 이와 같이 즐

거움에 진다고 하는 대중들의 경험은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 어려워진다.

따라서 대중들이 가진 선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참된 것을 밝히며 영혼을 참된 것에 머물도록 하는 “측정의 기술(356d)”이 중요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이 ‘측정의 기술’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올바르게 선택할 기술이고 앎이라고 설명한다(357b). 소크라테스는 대중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357d)”한 것이기 때문이며 즐거움에 저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지혜의 결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정의 기술’은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상돈(2014)은 이 ‘측정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김상돈(2014)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성격의 지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행위가 야기하는 선과 악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인간을 선하게 유지한다. 지혜가 인간의 행위에 내포된 선과 악의 가능성을 “추정(推定)”<sup>2)</sup>할 수 있을 때 그 지혜가 ‘측정의 기술’<sup>3)</sup>이 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측정의 기술’을 곧 선악을 구별할 도덕적 지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도덕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또한 김상돈(2014)은 이 도덕적 지혜를 대중들의 상식에 알맞게 조정한다. 얼핏 보기에 도덕적 지혜는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상돈(2014)은 질적인 즐거움의 도출을 통해 도덕적 지혜의 절대성을 내려놓는다. 이는 쾌락을 과도하게 억제하여 도덕적 지혜가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적인 즐거움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대중들이 도덕적 지혜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도덕적 지혜가 선악을 구분할 때 대중들이 가지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도덕적 지혜를 가지게 된 대중들은 무지에 의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선한 행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층위로 내려온 도덕적 지혜는 대중들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하며 절제에 있도록 한다. 당시 아테네의 상황을 보면 플라톤이 대중들에게 강조한 도덕적 지혜가 적실성을 가질 것이다. 정주환(2016)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천제를 논의한다. 당시 아테네는 대중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아테네의 민주정은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정치질서가 확립되었다. 특히 페리클레스는 배심원, 평의회 의원

2) 김상돈(2014)의 p. 441 참조.

3) Dimas(2008)는 ‘측정’이라는 지혜의 기술이 ‘즐거움· 좋음’과 ‘고통스러움·나쁨’의 구분뿐만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 좋음’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과도한 즐거움과 고통스러움을 절제하여 진정한 ‘ 좋음’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등 추천에 의해 임명되는 공직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안은 가난한 대중들을 정치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또한 치자들이 대중들의 의견에 휩쓸리게 하는 대중영합주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주환(2016)은 대중들이 민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페리클레스의 입법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테네 정치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배심원들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대중들이 유리한 판결을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았을 때, 아테네 민주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중들이 무지 혹은 무절제한 상태에 있게 된다면 치자들 역시 타락하고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들이 도덕적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거나, 절제를 함양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다.

정리하자면, 당시 피치자들, 즉 대중들은 무지에 의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플라톤은 이들에게 도덕적 지혜를 강조한다. 이 도덕적 지혜는 대중들이 무절제한 모습을 지양하게 하고, 선악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중들의 상식에 알맞게 적용되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대중들을 절제에 있게 한다. 대중들은 이를 통해 더 잘살게 될 것이다.

치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철학적 지혜는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임태평(1994)은 통치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이 철학을 단순히 학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지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이며, 최선의 삶과 영혼의 돌봄에 필요한 것이 철학이다. 통치자들에게 적용된 이 철학은 국가에도 적용되면서 국가 운영의 전체에 좋은 것을 구현하게 한다(428d).

철인은 한결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484b). 이 한결같은 상태는 좋은 것 그 자체, 즉 ‘좋은 이데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철인은 ‘좋은 이데아’를 파악하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통치하는데 국가와 개인은 물론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통치하게 된다(540a~b). 오수웅(2015)은 철인이 ‘좋은 이데아’를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본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인은 ‘좋은 이데아’를 통해 자신을 구현하고, 사적·공적 영역의 모든 인간들의 성격에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절제, 올바름, 시민적 덕을 함양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습관을 혼성하여 최대한 신을 닮은 인간을 형성한다. 둘째, 국가는 신적인 본을 닮은 체제, 즉 법률과 관례들을 정하여 시민들이 이를 준수하게 했다. 이와 같은 제안의 목적은 철인통치가 좋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피치자들이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자인 철인이 모범이 되는 한편 우수한 법률을 제시하여 시민들을 이끌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학은 인간 개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를 탐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철학적 지혜가 국가의 운영에 적용되면서 국가 전체가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즉 철인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철인은 ‘좋은 것’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본으로 삼아 국가와 개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철인은 입법과 통치 행위로 인간의 사적·공적 영역에 좋은 것을 행하여 인간의 내면에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 절제 있는 것을 양성한다. 또한 철인이 부여한 법률, 관행들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체(政體)의 형태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국가』에서 언급되는 철학적 지혜는 개인에게 좋은 것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철학적 지혜는 정치 권력과 결합하면서, 즉 철인을 통치자로 만들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철인은 진정한 지식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다. 따라서 철인은 훌륭한 통치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국가의 분열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철인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피치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철인은 영혼의 행복과 국가의 목적을 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과 삶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에 덕을 권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덕이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자가 무절제하다면 권력의 남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피치자가 교육을 수용해 좋은 것을 찾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를 행복하게 할 방법 또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치자가 좋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덕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피치자가 자발적으로 비도덕적인 상황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덕을 기를 수 있는 배경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치자와 피치자를 양성할 교육의 내용과 이를 통해 거듭난 치자와 피치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 2절. 덕성 교육, 철학 교육

앞선 절에서는 플라톤이 중요하게 생각한 지혜들을 피치자의 도덕적 지혜와 치자의 철학적 지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혜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프로타고라스』에 나타난 ‘덕성 교육’의 모습과 이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보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대중들이 ‘측정의 기술’, 즉 도덕적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절제를 하는 등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중들이 도덕적 지혜로 도덕성을 유지하려면 ‘덕성 교육’을 통해 선악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훌륭함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



스는 이 ‘덕성 교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논쟁한다. 소크라테스는 단일한 성격을 가지는 덕이 지혜와 같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덕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성 교육’에서의 덕성은 무엇이며, 이 덕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가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소크라테스와 히포크라테스를 만난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이 가르치는 기술이 사적인 일과 국가의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시민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기술로 이해하고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319a). 그 의문은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처럼 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민회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누구나 발언하는 모습(319b~d)과 페리클레스 같은 위인들이 후손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서 생긴 의문이다(319e~320b). 프로타고라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설화를 통해 덕을 가르칠 수 있다는 통상적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염치와 정의가 생겼다는 것을 설명한다(320c~322d). 이러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민적인 덕을 가지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각자 상호 보살핌을 통해 덕을 가르치고 불의를 징계하기 때문에 각자 훌륭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김영균(2003)은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시민적·정치적 기술로 사용되는 덕(319a)과 사회에 요구되는 도덕을 의미하는 덕(320c~322d)의 상충에 따른 프로타고라스의 교육 내용의 모호함을 지적한다. 즉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는 훌륭함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의 훌륭함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약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프로타고라스가 가르친다고 하는 덕의 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덕의 단일성(329d)’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프로타고라스는 정의, 분별, 경건함, 용기, 지혜 등의 덕목이 구분된다는 의견을 가지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덕목들이 단일하다는 논변을 전개한다. 정의와 경건함의 유사함(330c~332a), 지혜와 분별의 유사함(332a~333b), 용기와 지혜의 유사함(349d~351b) 등이 소크라테스의 논변에 담긴 내용이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장 대담하고, 가장 대담한 사람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지혜는 용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는 용기와 지혜의 유사함을 논의한 소크라테스에게 반박한다. 대담함은 기술에서 생기지만 용기는 소질과 양육에 의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한다.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오히려 덕이 단일하기 때문에 덕의 각 부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단일한 덕을 삶의 양식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이 단일하다는 가정에 입각해 소크라테스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연관지어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지는 것은 무지, 자신에게 이기는 것은 지혜로 보고 있으며, 인간은 본성에 따라 나쁜 것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나쁨에 대한 예견이며, 그 누구도 나쁜 것이나 무서운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겁한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 모두 자신이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향한다. 전쟁은 훌륭한 것인데 용감한 사람들은 전쟁터로 향하고, 비겁한 사람들은 전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한다. 즉 비겁한 사람은 전쟁의 훌륭함에 대한 무지로 인해 훌륭함 대신 수치를 택한 것이다. 따라서 용기는 무서움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다(358b~360d).

분명 전쟁터로 나아가는 훌륭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 가운데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사람만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훌륭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와 지혜가 유사하다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훌륭한 것을 인식하고 이 훌륭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훌륭함이라는 덕과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하나이며, 훌륭한 것을 찾도록 하는 이 도덕적 지혜는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덕이 앎, 즉 지혜와 하나가 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sup>4)</sup>,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덕이 앎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361b~c). 이준경(2010), 최한빈(2017)은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는 ‘앎’은 기술,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덕과 일체화된 ‘앎’은 프로타고라스의 일반적인 기술, 교육과는 달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익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덕성 교육’은 덕을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거나 전수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1절에서 언급한 선악을 구분하고 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는 ‘도덕적 지혜’와 삶 속에서 훌륭한 것을 성찰하게 하는 ‘덕성 교육’을 결부할 수 있다. ‘도덕적 지혜’는 보통 사람이 행위의 선악을 구별하게 한다. 이는 ‘덕성 교육’을 통해 인간이 삶에서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선악의 기준을 설정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간이 ‘도덕적 지혜’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자 할 때에도 ‘덕성 교육’이 전제될 것이다. ‘덕성 교육’을 통해 기꺼이 훌륭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인간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훌륭한 것을 추구하여 삶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혜를 추구할 것이다. 피치자들이 이 ‘도덕적 지혜’와 ‘덕성 교육’으로 진정한 선을 인식

4) Gagarin(1969)은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통해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이를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그 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희망했다고 정리한다.



하고 기꺼이 이 선을 추구할 때, 지혜로운 치자들이 제시하는 좋은 것을 위한 통치에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치자들이 삶의 성찰을 통해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면 좋은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치자를 위한 철학 교육은 『국가』의 철인을 양성하기 위한 계산,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변증법 등의 과목을 통한 교육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교과목이나 교육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철학적 주체의 수양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철학적 주제, 즉 철인의 수양에 집중해야 하며, 철학적으로 수양하는 주체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보여줄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철인은 ‘좋은 이데아’를 통해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을 구현한다. 그러나 철인은 이것을 피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철인의 철학적 수양과 삶의 방식이 국가의 통치로 이어질 때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철학을 수양하는 주제, 즉 철인의 정치의무에 관해 논의한 박수인(2020)의 의견을 주목할 수 있다. 박수인(2020)은 특히 철학적 주체의 수양의 논의에 집중한다. 철인은 자신을 진리의 인식의 주체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영성’의 태도를 가진다. 이 영성의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여 진실의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 ‘자기 배려’가 나타난다. 철인의 이 자기 배려는 권력을 덕이 있게 행사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철인의 이 자기 배려는 소크라테스적 ‘자기 인식’, 즉 무지의 지와 연결된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신적인 지성을 깨워 진리에 다가가려는 열망의 결합이 자기를 탁월한 행위의 주체로 만든다.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을 통한 수양에 끊임이 없어야만 철학적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철인을 지속적으로 수양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철인의 성격을 정치에 적용한다면 통치자는 자연스럽게 좋은 정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라톤의 철인통치를 독재라고 비판하는 의견을 극복할 수 있으며 철인통치와 피치자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철학적 주체가 수양하는 삶을 통해 좋은 것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에 적용할 때 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좋은 통치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여기서 박수인(2020)의 의견을 다시 살펴보면, 수양을 지속하는 철인은 현실의 정치에 참여할 때 인간들의 삶을 올바르게 바꾸고 훌륭한 판단과 덕에 순종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통치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박수인(2020)은 이 철학적 지혜가 통치자의 행동을

5) 『국가』는 교육을 통해 지혜로운 통치자를 만들고, 그를 통해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 5권은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 철인통치의 등장, 6권은 철인이 추구하는 좋은 이데아, 7권은 좋은 이데아를 터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과목을 언급하며 이상국가와 철인통치의 확보 가능성을 논의한다.

결정하는 것이 통치자가 피치자의 행동을 강제하는 입법의 선결 조건임을 보여 준다. 철학적 지혜는 훌륭한 삶을 성찰하는 수양과 실천의 과정에서 실제화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학적 지혜와 철인통치는 결국 철인이 수양하는 삶의 방식에 따른 지혜의 습득과 이에 기반한 정치를 통해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치자의 수양에 따른 모범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지혜의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자의 태도는 피치자들의 덕성 교육·도덕적 지혜와 상보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덕성 교육은 감정과 쾌락에 충실한 시민들이 절제에 있도록 하며,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치자들은 훌륭한 치자들의 통치를 받아들일 배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적 지혜는 철인이라는 치자를 양성하는 한편, 이 철인이 좋은 의 이데아에 다가가게 한다. 이러한 좋은 의 이데아는 강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철인의 수양의 자세와 국가의 정치를 결부하여 좋은 것을 찾을 때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가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면서 이상을 실현할 통치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3절. '최선의 법'에 따른 '법치'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통치모델로 '법치'를 구상한다. 이 '법치'라는 통치모델은 지배층·피지배층을 막론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이 교육에 의해 나타나는 안정적인 통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치'는 철인통치의 법치화를 통한 '인치'와 '법치'의 상보관계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장준호(2010)는 이러한 '인치'와 '법치'의 상보관계를 설명한다. 장준호(2010)는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국가』의 철인통치를 법률로 통제하면서 인치와 법치의 조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지혜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인들은 지혜롭지 않았으며, 철인들은 정치에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 법을 통해 철인들을 정치에 나서게 해야만 했다. 즉 훌륭한 시민이 교육장관이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를 정치에 나서게 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시민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야간위원회에 중년 정치인들이 청년들과 함께 정치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인간의 덕성과 정치개혁을 연결하는 플라톤의 철인통치 이론이 후기 저술인 『법률』까지 이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플라톤의 철인통치가 법치라는 방법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특히 플라

6) Cropsey·Strauss(2010)는 『국가』에서 철인통치의 이상적인 내용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플라톤이 『법률』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체를 찾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본다. 반면에 한상수(1999), 김윤동(2011)은 『국가』와 『법률』이 단절되지 않

톤의 후기 저술 가운데 하나인 『편지들』, 특히 디온의 사후, 시라쿠사에 잔존한 디온의 추종세력에게 보내는 정치적 조언의 성격을 가진 『일곱째 편지』에서 교육과 ‘법치’에 대한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플라톤은 시라쿠사의 정치 개혁을 위해 인간의 덕성 함양을 통한 정치개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그 원리로 첫째, 플라톤은 시라쿠사의 구성원들이 가진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플라톤은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331a)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촉구했다. 당시 시라쿠사는 쾌락과 낭비는 물론 사람들이 태만해져 있는 상태였다. 무절제한 나라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326d) 지배층·피지배층을 막론한 구성원들이 폭주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시라쿠사 시민들을 “최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324b)”<sup>7)</sup>으로 만들어 폭주를 방지해야 했다. 플라톤은 개인이 가진 습관의 변화로 최선의 법에 따른 통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묶고(326a), 이들을 올바른 정치로 이끌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을 수양으로 찾으려 했다.<sup>8)</sup> 수양을 통한 개인의 습관의 변화는 법치의 구체성으로 연결된다. 김비환(2010)은 구성원들의 덕성의 정도에 따라 법치의 구체성을 연결시킨다. 이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덕성과 정치체제의 질서에 관한 입법자들의 판단에 의해 법체계의 구체성과 전문성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은 지성의 배분”<sup>9)</sup>이며, 지혜로운 입법자들은 언제나 가장 올바른 것을 지혜와 기술에 의해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체제가 건전하고 우수한 관습과 도덕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된다면 최소한의 법체계가 필요하고, 관습과 도덕이 미흡하다면 구체적인 법이 필요하게 된다. 법체계의 구체성과 내용은 교육에 관련된 법의 집행을 통해 변화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새롭게 생긴 관습 혹은 도덕의 양상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선의 법이 생긴다. 이러한 최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들은 훌륭한 삶을 살면서 법에 의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법이 무엇인지 찾는 한편, 최선의 법에 근거한 법치를 구현할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플라톤은 또 다른 정치개혁 원리로 통치자의 모범과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개

있다고 본다. 즉 철인통치나 법치라는 정체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국가』의 철인통치 이론이 가진 함의가 『법률』까지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 7) 플라톤이 언급하는 ‘자유’는 그리스 시민들이 정치, 공직, 선거에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곤(2014), 박수인(2018) 참조.
- 8) 326d에서도 언급했지만 관습법이 지배적이던 당시 사회를 살펴보면 개인의 습관이 정치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부각된다.
- 9) 『법률』 714a 참조.

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용기, 지혜, 정의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그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335c~d). 또한 지도자에게 “참다운 생각(335d)”을 기르고 가르쳐 덕성과 권력을 결합한 철인을 만들면, 구성원들을 최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사리분별과 정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친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된다(332c).<sup>10)</sup>

이와 같이 시민들의 덕성과 법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덕을 추구해야 하고 분별과 절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것을 인식할 지혜의 수양이 요구된다. 그러나 당시 시라쿠사를 지배하던 디오닉시오스 2세는 아는 척을 하기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플라톤은 그에 대해서 전혀 정통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학문은 말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교육, 공동생활<sup>11)</sup>을 통해 갑자기 혼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41b~d).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전체 실재에 대한 진상을 배워야 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연마를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344b).<sup>12)</sup> 즉, 플라톤이 생각한 진리는 디오닉시오스 2세의 경우와 같이 말이나 글로 써서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수양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필요를 인식하여 수양에 나설 때만 그 효과를 보고 법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플라톤은 디오닉시오스 2세 같은 현실의 정치인은 철인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리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덕을 함양하는 철인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철인의 인치와 이를 보완하는 법치의 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의 통치모델을 정리하자면, 시민들의 습속을 교화하고 최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법 체계를 최소화해야 했다. 또한 입법자들을 철인으로 만들어 정의로운 것을 찾도록 하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하여 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즉 피치자의 절제와 치자의 지혜가 강조되는 한편, 이러한 덕목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 장지원(2011)은 플라톤의 목표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훌륭해지는 것으로 봤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구성원들의 생활방식과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통해 훌륭해진 사람들은 공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11) 332c에서 언급한 “친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통치자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덕의 유무가 나뉜다(332c). 이러한 수양을 위한 공동체가 향후에 정치적 세력 형성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Kelsen(2011)은 플라톤이 절대선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 신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탁했다고 한 것을 들어 정의나 진리의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절대선을 인식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에 집착한 비판이며 스승, 동료들과의 공동생활에 따른 수양과 진리의 인식을 중요하게 여긴 플라톤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플라톤은 지혜를 통한 법치의 실현이라는 통치모델의 형성 이외에도 시라쿠사의 파벌 대립과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 시라쿠사 내란의 승리자는 물론 패배자들도 만족할 법률을 만들고 외경과 공포라는 두 강제적인 장치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포는 내란의 승리자들이 패배자들보다 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외경은 승리자들이 쾌락을 이기는 데 강하고 법률에도 복종하면서 더욱 의욕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생긴다. 공동체가 공포와 외경을 통해 법률을 준수할 경우 재앙으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337a~d).<sup>13)</sup>

이러한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박수인(2019)의 경우는 『정치가』에서 지식에 입각한 법치의 원리를 도출하고, 『법률』의 혼합정체에 내포된 과두정적 법치의 특성을 논의한다. 이를 살펴보면, 훌륭한 정체에 훌륭한 법이 필요하며, 지식을 획득한 소수가 입법과 법 개정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지식을 갖지 못한 다수는 법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이는 플라톤이 법치의 정당성을 지식에 의한 통치로 종속시킨 것이다. 또한 동의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이 훌륭한 통치로 제시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복종의 정당성을 보장하려면, 통치자의 지식을 전제로 설득과 동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지식에 근거한 정당한 통치와 법은 이성적인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sup>14)</sup>

이러한 법에 지혜가 집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혜가 집약된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만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이다. 플라톤의 법은 “보편적인 이성의 구현 내지 표현으로서 진정한 지식의 대상이다. 즉, 이성의 판단들이 국가의 명령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성이 곧 법이 되며, 인간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한상수 1999, 67).”<sup>15)</sup>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는 상태는 대중들이 욕구를 절제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이상을 실현할 최적의 상태가 된다.

### 3장. 퇴계 이황: ‘인(仁)’과 ‘효(孝)’를 조합한 통치모델

#### 1절. ‘인(仁)’한 치자와 ‘효(孝)’를 실천하는 피치자

13) 플라톤은 여기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입법자로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가정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선조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14) 이러한 법치의 원리는 『법률』에서 언급된 공직이나 제도, 야간위원회에 관한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개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식에 입각해 법을 입법하고 수정하며 복종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유지하고 운용할 공동체의 생산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박수인 2019, 121~123).

15) 플라톤은 『국가』 424c~427e에서 관습, 즉 법률이 타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훌륭한 법질서를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상태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입법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훌륭한 것을 섬기며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또한 올바른 것”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퇴계는 ‘인(仁)’이라는 덕목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치자들이 ‘인’한 성격을 가진 ‘성인’이 되는 것을 기대했다. 퇴계의 ‘인’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인’에 대한 통설을 살펴보자. 장승희(2014)는 공자, 맹자, 주자의 ‘인’ 개념을 살펴본다. 공자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던 개념인 ‘인’을 정리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왕실의 쇠퇴, 정전제의 붕괴, 신흥 지주계급의 등장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것이다. 공자는 ‘인’을 통해 고대의 성스러운 통치를 복원하고자 했으며, 인간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다. 맹자는 공자의 ‘인’ 개념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으로 인간의 본성을 체계화한다. 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성선설적 본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인’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늘(天)’과도 같은 ‘민의(民意)’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민의’는 조작하거나 갈아치울 수 없으므로 국정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자는 『인설(仁說)』에서 ‘인’을 가져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주자의 ‘인’은 조선의 유학자들 특히 퇴계가 주로 참고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주자의 ‘인’은 사람의 육신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사람의 본성에 절대선이 내재되어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선한 본성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 것이다. 또한 ‘인’이 생물을 낳는 천지의 마음으로 확장된다. 천지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되며 ‘인’한 성질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 맹자, 주자 모두 ‘인’을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하되,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선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인’을 본성적으로 내재한 인간들은 선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인’은 자연스럽게 퇴계 사상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절대선이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퇴계의 의견에 의해 그 형태가 변용된다.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인설도(仁說圖)’에서 주자의 ‘인’ 개념을 주로 다루는데 주자의 ‘인설(仁說)’을 기반으로 하여 어진 사람(仁者)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 ‘인설도(仁說圖)’에서 다루는 ‘인’은 미발 상태에서는 체험할 수 없지만, 이발 상태에서 나오는 의식들은 체험할 수 있다.<sup>16)</sup> 여기서 미발과 이발을 경험하는 인간의 본성인 ‘성(性)’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 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 ‘성’을 정의하지 않으면, 인간이 공부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부의 입지가 온전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자는 본성인 ‘성’을 의식 그 자체인 ‘마음(心)’ 대신 의식의 발현인 ‘정(情)’과 대비시킨다. 이로 인해 ‘마음(心)’이 ‘본성(性)’과 ‘의식현상(情)’을 모두 아우르는 ‘심통성정(心統性情)’ 상태가 된다.

16) 인간의 본성인 ‘성(性)’, 의식이 활동하지 않거나(未發) 의식이 활동하거나(已發)를 따지는 ‘정(情)’은 인간의 의식 그 자체인 ‘마음(心)’을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愛)’을 초월한 본성이 아니라 무한하게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을 만드는 ‘마음의 본래면모’가 된다. 오성혜(2009)는 이러한 ‘인’을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을 초월하는 본체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에 기반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sup>17)</sup> 이에 관한 퇴계의 의견을 살펴보자.

퇴계는 ‘인설도’에서 이 ‘인’을 천지가 만물을 나게 하는 마음이고, 사람이 그것을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이러한 ‘인’은 미발 상태에서 ‘체(體)’로 작용하면서 의·예·지와 같은 사덕(四德)의 다른 구성요소를 포괄하고, 이발 상태에서는 인의 작용(用)인 측은(惻隱)이 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와 같은 사단(四端)을 포괄한다. 또한 퇴계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천지의 마음(天地之心)”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 ‘천지의 마음’에 ‘원(元)·형(亨)·이(利)·정(貞)’<sup>18)</sup>이 있는데 이 가운데 ‘원’이 나머지 부분을 거느린다. 이와 같은 ‘천지의 마음’이 작용하면 춘하추동의 순서가 생기면서 천지의 만물을 기르는 봄의 기운이 모든 것을 관통한다. 이것을 인간의 ‘인의예지’에 비교하면, ‘인’이 다른 사덕의 발용(發用)이 되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사덕의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따라서 ‘인의 도(道)’가 천지 만물의 마음이 되는데 미발 상태에서는 ‘인의 예(禮)’가 마음에 구비되고, 이발 상태에서는 그 작용이 다양하게 된다. 천지 만물의 마음이 ‘인’을 체득하고 유지하면, 모든 선의 원천과 행실의 근본을 갖게 될 것이다.

西田幾多郎·高橋進(2019)는 위에서 언급한 ‘인’의 두 가지 역할인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의 근본’과 ‘천지가 만물을 낳는 작용’이 서로 비교되면서 ‘천인상응(天人相應)’의 논리가 생성됐다고 본다. 따라서 ‘인’은 천지생물의 마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사람을 낳고 기른다’는 마음의 작용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19)</sup> 또한 퇴계는 ‘인설도’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인’의 요점인 천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인’은 체(體)와 용(用), 사랑의 이(理)와 발(發)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인’ 자체에 능동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을 통해 선의 근원과 이치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이치를 해명하는 것이 실현됨에 따라 ‘몸을 성실히 하는 것, 덕을 높이는 것, 업

17)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2016)에서는 ‘인’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보는 것 보다 사람의 마음에 내재된 씨앗으로 본다. 이 ‘인’은 사람이 사람의 형체로 생기도록 하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원리가 된다.

18) 『주역(周易)』의 ‘중천건(重天乾)’의 도입부를 보면, 하늘의 성정으로서 ‘건(乾)’이 ‘원형(元亨)하고 이정(利貞)하다’ 즉, 하늘의 성정이 으뜸이고 형통하되, 이로우며 곧은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19) 오지환(2015) 역시 천인상응(天人相應) 혹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통해 하늘과 인간의 도덕적 원리가 유기적인 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원리가 하늘에 그 기반을 둘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 원리를 하늘에게 다시 부여받으면서 유교의 도덕적 이상향을 그려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을 넓히는 것,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성인은 이러한 덕목과 과업들을 전부 성취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주체가 되고, 사랑이 본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천지만물에 이르도록 하는 훌륭한 인간이 된다.

퇴계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인설도'의 끝에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머무른다는 해설을 추가하고, 옛 왕들이 마음을 전하고 '인'을 체득한 묘법을 구하려면, 여기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이 가진 요점들을 임금이 직접 실행하여 통치계급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교화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금장태(1999)는 퇴계가 임금에게 강조한 '인'을 정치에 연결하여 설명한다. 금장태(1999)에 따르면, 퇴계는 임금이 백성들을 볼 때는 다친 사람을 보거나 갓난아기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仁民'의 자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慈愛'의 자세와 같다. '仁民'과 '慈愛'의 자세는 임금이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며,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살피며 '인'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임금은 '인을 통해 백성과 가족이 되며 '인'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퇴계가 고안한 '인'한 성격을 가진 '성인'<sup>20)</sup>은 인간과 자연을 관통하는 선한 원리인 천지만물의 생성원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실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성인'은 주변 사람들을 부모가 '慈愛'의 자세로 자식을 바라보듯이 하며, '인'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sup>21)</sup>

퇴계가 치자들에게 피치자들을 위할 '인'의 구현을 요청했다면, 피치자들에게는 '효(孝)'를 실천하여 윤리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규범이 된다.<sup>22)</sup> 이진수(2015)가 정리한 퇴계의 '효'를 살펴보자. 이진수(2015)는 자식이 부모의 자애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이 '효'라고 본다. 이러한 '효'가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격을 구현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진수(2015)는 '효'를 덕의 기본이자 하늘이 부여한 당연한 도리로 파악하고,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진수(2015)는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20) 최영진(2019)은 사람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는 인간이 수양하여 성숙한 자신(修身)을 만들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齊家), 정의로운 사회(治國), 세계 평화의 실현의 달성(平天下)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이 수양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 올바른 정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21) 박지현(2015)은 퇴계의 '성인' 개념의 특징을 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 대신 절대적으로 선한 '리'를 강조하는 데서 나온다고 본다. '심'은 미발 상태에서 행하는 존양을 통해 몸에 대해 주재한다. '심'은 이를 통해 칠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도덕성은 칠정보다 선에 가까운 사단으로 향하게 된다. 퇴계는 이후에도 칠정에서 도덕성을 찾지 않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22) 물론 치자에게 효, 피치자에게 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덕목이 더 중요한지 그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며,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효’의 실천을 강조한다. 자신의 안색을 돌보고 부모의 잠자리를 살펴 근심걱정이 없게 하거나, 외출했을 때 행선지를 고하고 문안을 드려야 한다. 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효의 실천인 것이다. 부모의 제사에도 추모의 정을 가져야 하며, 조상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제사를 통해 ‘효’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손의 번영과 친족의 화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퇴계의 ‘효’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질서에 있을 수 있게 한다. ‘효’는 덕행의 기본이 되어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고 구성원들을 부양한다. ‘효’는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하게 한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효’를 장려했고 ‘효’의 실천에 따른 상벌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도덕적인 모습으로 유지하는 ‘효’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피치자들이 ‘효’를 실천하는 데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었다. 치자의 ‘인’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수양을 통해서 ‘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치자들이 치자의 올바른 정치에 상응하려면 치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피치자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효’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피치자들 모두에게 수양을 권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양 대신 피치자들에게 실천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효’의 체득을 권장했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 2절. ‘거경궁리(居敬窮理)’와 ‘효(孝)’ 사상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도입부에서 수양의 기본이 되는 자세인 ‘경(敬)’을 제시했다. 이 ‘경(敬)’은 유교 사상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여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학문과 인심이 융성했던 선대를 현재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은 이러한 유교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인 ‘인(仁)’에 근거해 욕망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제거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다. 그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는 퇴계 역시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를 인식해야 하는 인간이 진리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 이명수(2012)는 퇴계가 특히 권력자인 임금이 외부 요소에 의해 감정이 흔들리고 선악이 혼재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

23) 치자에게 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치자에게 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과 효라는 덕목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문에 임금에게 금욕주의에 가까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설정했다고 본다. 이러한 금욕이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집중된 상태, 즉 ‘주일무적(主一無適)’한 상태인 ‘경’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경’은 존재의 본질과 작용, 동(動)한 상태와 정(靜)한 상태,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미발(未發)과 감정이 드러난 이발(已發) 모두를 관통하는 정신 수양의 방법이 된다. 즉 퇴계의 ‘경’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학문과 수양에 힘써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고안된 수양의 자세인 것이다.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서명도(西銘圖)에서 ‘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경’의 자세에 입각한 ‘성학(聖學)’을 설정한다. ‘성학’을 수양하는 인간은 마땅히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sup>24)</sup>

“대체로 성학(聖學)은 인(仁)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비로소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됨이 진실로 이려하다는 경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을 실현하는 공부가 맛이 있어서 손댈 수 없는 걱정을 면할 것이고, 물(物)을 자기 것으로 아는 병통이 없어져 심덕(心德)이 온전할 것입니다.”(필자의 강조 추가)<sup>25)</sup>

앞서 언급했듯이 퇴계의 목표는 학문을 통한 인간 주체의 확립인 ‘人極’의 확립에 있다. 이러한 주체의 확립을 통해 존재의 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존재들에 내재한 절대적으로 선한 원리인 ‘리(理)’를 찾을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각 존재들은 자신들에게 내재해 있는 절대선인 ‘리’를 찾고자 한다.<sup>26)</sup> 이와 같이 퇴계 사상의 근거에서 흐르는 ‘리’의 능동성과 절대선이라는 성격은 끊임없는 수양과 학문 연구를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퇴계는 리가 스스로 발현할 수 없고 기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기존 성리학 체계와 자신의 이론이 충돌할 때에는 ‘리’를 체득하려는 수양으로 이론적인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퇴계는 무질서와 부조화를 부르는 요소인 욕망을 제어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거경궁리(居敬窮理)’ 같은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거경궁리’를 살펴보자.

‘거경궁리’는 궁리할 때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아 하나에 집중하는 ‘거경(居敬)’과 사물을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인 ‘궁리(窮理)’

24)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성격을 가진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성인’이 언급된 것은 임금 그 자신이 ‘성군(聖君)’이 되고 ‘인’이 구현되는 올바른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퇴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의 근본이 되는 개념인 ‘인’에 의해 수양론을 정립한 ‘경’은 다시 이 ‘인’을 체득(體得)하고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여 올바른 정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5)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爲仁之功. 始親切有味. 免於莽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26) 유교는 기본적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스스로 운행하는 ‘소이연(所以然)’ 상태인 태극의 기운에 따라 인간에게 ‘리(理)’와 같은 절대적인 선한 가치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기(氣)’는 ‘리’의 발동에 따라 혼탁한 것이 뒤섞인 상태로 본다. 유교의 ‘이기론(理氣論)’은 조선에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고봉 기대승같은 학자들의 토론에 의해 발전한다. 여기서 퇴계는 ‘리’의 절대성·능동성을 강조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2009), 서근식(2017) 참조.

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서 성정(性情)을 통섭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거경궁리’가 작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퇴계는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서 이기(理氣)를 겸하고 성정(性情)을 통합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마음에서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될 때가 마음의 기미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화의 중추이며 선악이 나뉘는 부분이 된다. 퇴계는 여기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을 견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경궁리’ 이론의 단초를 제공한다. ‘경’을 견지한 상태에서는 ‘리’와 욕심의 분별이 가능하고, 미발 상태에서는 ‘존양(存養)’하고, 이발 상태에서는 ‘성찰(省察)’하는 데 익숙하고 진리를 축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오직 하나이며 치우침 없이 뒤흔힌 도리를 잡는 성학”과 “체(體)를 보존하고 용(用)을 응(應)하는 심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승태(2011), 손병욱(2013)은 감정이 함부로 발동되는 것을 자제하는 미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존양’을 ‘거경’으로 본다. 이러한 ‘거경’은 후술할 ‘궁리’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거경’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흔들림 없는 기준을 설정한 상태에서 실행되는 ‘궁리’는 감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이발 상태에서 이뤄진다. ‘궁리’는 여기서 발동한 감정이 ‘리’에 따른 것인지 욕심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고, 욕심을 제거하도록 하는 ‘성찰’의 역할을 한다.<sup>27)</sup>

퇴계는 인간의 덕성 함양에 대한 논의를 ‘거경궁리’에 따른 지식의 습득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확장시킨다. 퇴계는 이를 통해 ‘리’를 현실에서 행동하는 실체로 확립하고자 했다. 퇴계는 현상 자체는 선악이 뒤섞인 ‘기(氣)’이지만, 그 본질에는 ‘리’가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에 ‘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다. 현상의 선한 본질을 현상 자체에 현현시키는 절대선이 인간의 감정과 행위, 특히 수양에 따른 체득을 통해 현실에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된 지식(眞知)을 ‘거경궁리’로 연구한 이후에 ‘역행(力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역행’이 ‘거경궁리’와 병행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덕성(德性)을 덕행(德行)으로, 지(知)를 행(行)으로 옮겨나가는 ‘지행병진(知行並進)’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知)’와 ‘행(行)’의 관계에서는 ‘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이 구조는 퇴계의 ‘사(思)’와 ‘학(學)’의 구조로 연결된다. 퇴계는 ‘학’이 그 일을 습득해 참되게 실천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이치를 통달하고 배워서 실

27) 井上厚史(2006) 역시 퇴계가 정리한 ‘마음’을 몸의 주재(主宰)가 되는 것, 하늘에 의해 신령한 것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군자라면 당연히 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항상 ‘경’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퇴계는 또한 ‘궁리’의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는데 책에 이미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지고 신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實狀)대로 하는 자세가 중요해진다. 즉 ‘사’와 ‘학’의 병행이 직접적인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준호(2018)는 ‘지행병진’을 진실된 지식인 ‘거경궁리’와 실천인 ‘역행’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식과 실천을 단순하게 ‘단지 아는 것’이나 ‘일시적인 행동’으로 변질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적역구(眞積力久)’의 자세 즉,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해진다고 본다.

또한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도입부에서 처음에는 수양이 부자연스럽고 모순되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수양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많이 쌓고 오래 힘써 나가면, 마음과 이치가 물이 배듯이 익숙해진다고 격려한다. 이것은 수양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수양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끊임이 없어진다는 퇴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강보승(2015)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성리학의 정수(精髓)로 이해하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부단한 자기반성 혹은 바른 몸가짐의 실천이라는 수양의 방법론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퇴계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통해 고매(高襟)한 이론을 논의하기 보다 일상 생활에서의 수양을 ‘성인’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퇴계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다스릴 도덕성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수양의 목표로 ‘인’에 근거한 ‘경’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은 ‘거경궁리’라는 수양 방법을 통해 참된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까지 발전했으며, 이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퇴계는 효의 실천을 통해 피치자들이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국가 전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자 했다. 피치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치자들의 ‘인’을 구현하는 정치와 상응할 수 있다. 즉 피치자들이 효를 실천하고 이것이 국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김익수(2008)는 다음과 같이 퇴계의 ‘효’ 사상을 정리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져 부모를 욕먹지 않게 하는 율신(律身), 평상시의 생활이 도덕적이며 절도 있게 지내도록 하는 거가(居家), 조상을 존경하는 봉선(奉先), 가족 상호간에 친근하게 지내 인간다움을 기르고 남의 부모도 공경하는 정훈(庭訓),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는 처향(處鄉),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국정에 임할 때에도 견지하는 사군(事君)으로 퇴계의 ‘효’ 사상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퇴계는 피치자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에서 발원하는 정치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효’에 대한 훈육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훈육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직접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효’를 직접 실천하는 것만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덕

적인 성격을 가진 가정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도 ‘효’가 통용되는 것은 물론 임금을 볼 때 부모를 보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치자의 ‘효’가 임금의 ‘인’과 올바른 정치에 상응한다.

치자의 ‘인’이나 피치자의 ‘효’는 모두 타인을 사랑하도록 하며 인간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또한 치자에게도 ‘효’가 중요하며, 피치자에게도 ‘인’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은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가치관이었다. 이러한 ‘인’은 ‘거경궁리’를 통해 오랜 시간 수양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수양을 통해 깨달은 ‘인’은 통치의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인’은 임금이 백성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당시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 ‘인’을 깨달거나 체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피치자의 위치에 있는 이상, 이 ‘인’을 통치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치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행할 수 있으며 치자의 통치에 부합할 수 있는 덕목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효가 적합했다. 피치자들의 효의 실천은 치자들이 하는 거경궁리를 통한 수양에 비해 직관적인 내용이며, 특별한 교육 시설이나 장시간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효는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있으며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보편적인 윤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효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피치자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자 했다. 김덕균(2021)은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권장되는 ‘효’를 살펴본다. 효자가 있는 집안에 충신이 나온다고 하여 효자를 관직에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이러한 경로로 등용되는 관료들은 임금이 직접 시험하여 능력을 검증했다. 능력이 있으나 불효한 경우는 출세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즉 능력보다 도덕적인 모습이 우선되었다는 것이다. 불효한 자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엄격했다. 세종은 백성들이 저지르는 패륜이 자신의 실책이라고 했다. 성종은 부모의 사랑이 선택이지만, 자녀의 효도는 의무라고 강조하여 당시에 윤리적인 기준을 확고하게 정했다. 더 나아가 1488년, 즉 성종 19년에는 부모를 살해할 정도의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 해당 범죄자가 거주하던 행정구역을 폐지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는 합의와 제도에 의해 확립된 행정구역이 개인의 불효로 인해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불효는 행정구역과 해당 관청을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 것이었다.

이를 보면, 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되, 불효는 엄벌하여 도덕적인 가치를 통용시켰다. 이와 같이 규범적이며 실천적인 기능을 가진 효는 퇴계의 『향입약조

(鄉立約條)』와 연결된다. 이 『향입약조(鄉立約條)』는 지방의 향약을 규정한 것인데 국가의 통치와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 3절. 군신의 권력분립, 국가와 지방의 상호존중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의 4~6조목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할 임금이나 사대부들의 직무 윤리를 설정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모델을 구체화한다. 퇴계의 이 논의는 성군의 통치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단이었으며, 치자가 모범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우선 4조목에서는 천명에서 비롯된 올바른 윤리를 행할 도술(道術)을 밝혀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강조된다. 당시 조선은 민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어려웠다. 특히 국가의 권력이 미약해지는 지방의 경우는 토호세력의 발호로 인한 법집행의 어려움은 물론 세시풍속, 장례, 제사의 준수와 같은 예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명종 시기에 임꺽정의 난과 같은 내란이 발생하면서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이 작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퇴계는 임금이 직접 모범이 되어 백성들을 교화해야 하며, 이것이 “진실되게 아는 것(眞知)”과 “실천의 설(實踐之說)”과 같은 진실한 태도를 통해 겉치레에만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퇴계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뜻을 품고 관직에 진출하려는 선비들과 새로이 덕성을 함양하려는 백성들이 가진 도덕의 기준이 높아지고, 간신들의 교화도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를 개혁할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군’이라면 백성부터 사대부에 이르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인륜의 도리를 권장하고, 정치와 습속의 교화를 통해 올바른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력은 5조목에서 언급된 복심을 미루어 이목을 다스리는 데 필요해진다. 당시 조선은 세조(世祖, 1455~1468)의 집권 이후 명종(明宗, 1545~1567) 시기까지 통치자로서 임금과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대신, 언론과 감사를 담당하는 대간의 권력 배분과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이 가장 큰 화두였다. 이들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발생하면서 정국의 혼란함이 가중되었다. 특히 선대 임금들을 격하하고 급진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조광조(趙光祖, 1482~1520)와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중종(中宗, 1506~1544)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기묘사화, 무력한 임금인 인종(仁宗, 1544~1545)과 명종을 둘러싸고 대신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대운파와 소운파로 나뉘어 충돌한 을사사화는 임금의 권한과 역할, 윤리의식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사례가 되었다.<sup>28)</sup> 따라서 퇴계는

28)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燕山君, 1494~1506)이 임금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간을 약화시키고 사림파를 숙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대간들이 임금과 대신들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임금, 대신, 대간의 권력 배분에 대한 문제가 심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국가의 체제를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처방을 내리고자 했다. 여기서 임금의 머리, 대신은 복심, 대간은 이목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삼자가 서로 기다리고 이루는 때에 이상적인 정치의 형태가 나타난다. 즉 군신의 권력분립이 필요하며, 이 분립된 권력을 토대로 각자가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이상적인 통치모델이 구비된다는 것이다.

퇴계는 구체적으로 임금이 대신을 신임하지 않고 대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심을 끊고 이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머리만 홀로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임금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대신과 대간의 고유 업무에 대한 임금의 간섭을 방지하고 신뢰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퇴계는 임금이 덕을 밝게 하여 백성들을 계도하고 사사로운 뜻이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경우, 벼슬에 있는 신하들이 뛰어난 정책을 내놓고 쟁론을 하는 선비들이 국정의 보완점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임금의 과실을 알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퇴계는 이러한 세 가지 형세가 통하여 정신을 모으고 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라에 어진 다스려짐이 없거나, 세상이 융성하고 평안한 지경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이 덕을 밝히고 대신과 대간들을 존중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강보승(2021) 또한 퇴계가 임금이 대신을 신임하고 대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임금, 대신, 대간이 협력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를 신하들과 함께 행하고 대간을 비롯한 선비들의 상소에 귀를 기울여 권력의 각 계층이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도와야 한다는 권력분립론을 확립했다고 본다.

또한 퇴계는 머리의 역할, 즉 조선의 통치자로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임금의 '경'의 자세를 버리고 향락에 빠지게 되면, 법도가 무너져 어진 사람을 구하지 못함에 따라 간신들이 득세할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곧 정치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대학(大學)』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을 질투하는 간신들이 득세할 경우,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인자한 사람이 되어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임금이 게으르면 이러한 인재들을 등용할 수 없는데 이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다.

6조목은 이러한 군신 권력분립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 수양을 지속하여 하늘의 사랑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임금은 하늘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는다. 이때 정통성과 함께 인애(仁愛)의 정치<sup>29)</sup>에 대한 책임이 임금에게 부여되면서 임금도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임

29) 『대학(大學)』의 3강령인 '덕을 밝게 할 것(明明德)', '백성들을 이롭게 할 것(新民)', '지극히 선한 경지에 머무를 것(止於至善)'을 살펴보면, 인애의 정치가 도덕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이 이에 소홀하고 국가에 덕이 사라질 경우는 하늘의 상제(上帝)가 직접 재해를 내려 환란을 그치게 한다. 따라서 퇴계는 임금이 인애의 정치를 실행해야 하며, 수양을 통해 상제를 빛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퇴계는 상제<sup>30)</sup>라는 존재, 특히 기존 성리학 이론체계에서 경외의 존재로 등장하는 상제를 징벌적인 재해를 주는 공포의 존재로 발전시켜 임금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sup>31)</sup> 김형찬(2007)은 임금이 천명, 하늘, 상제와 같은 천지의 생성원리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도덕적인 존재를 학습하더라도 실제로 행하고 체화(體化)하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퇴계가 상제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국가의 올바른 정치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퇴계는 ‘천리’라는 체계의 내부에서 ‘인’에 기반한 덕치를 하지 못한 임금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상제가 가진 기존의 모습 대신 상제의 능동성과 공포를 부각시킨다. 이는 앞서 언급한 퇴계의 ‘리(理)’의 능동성에 기반한 것인데 덕치를 위한 징벌을 부여하고 절대선을 구현하는 독립적이며 공포의 성격을 가진 즉, 인격적인 상제로 나타난다.<sup>32)</sup>

정리하자면, 임금이 직접 정치를 실행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 백성과 사대부들을 교화하고 올바른 정치를 시행할 동력을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 대신, 대간이 권력을 분립하고 이들이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임금은 하늘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에 따라 인애의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 재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하늘의 상제를 빛낼 인애의 정치를 실행하고 경외심·공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퇴계는 임금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군신의 권력분립을 도모하는 한편, 상제라는 강제 장치를 동원하여 인애의 정치를 구현하고,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퇴계는 치자의 직무윤리와 군신의 권력분립에 상응할 피치자들의 태도를 『향입약조(鄉立約條)』에서 설명한다. 피치자들이 치자들의 국정 운영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공동체에 도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치자들의 태도는 치자의 통치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와 지방이 상호존중하는 통치모델의 기반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선 퇴계는 『향입약조(鄉立約條)』에서 가족공동체의 윤리가 국가공동체의 윤

30) 신현승(2011)은 경외심에 기반한 상제의 존재가 임금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임금의 권력을 제한하여 신하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기능도 한다고 본다.

31) 『중용(中庸)』 19장의 “하늘에 제사지내는 교(郊)제사와 땅에 제사지내는 사(社)제사의 예는 상제를 섬기는 방법이다(郊社之禮. 所以事上帝也)”를 보면 기존의 유교 이론체계에서도 상제가 경외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황상희(2017)는 퇴계가 절대선·리(理)를 경험할 수 있는 기본 단위로서의 공동체에 천명을 내리는 실제인 ‘상제’를 창안했다고 본다. 이러한 상제는 고대에서 조선까지 존재하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유교의 상제를 통해 현인신(現人神)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유교적 윤리의 본질이 담겨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과 ‘효’는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이 ‘인’이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면 ‘효’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즉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도 사랑이 실천된다는 것이다. 가정을 보호하는 나의 부모가 소중하듯, 다른 이들의 부모도 소중하다. 이러한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치자도 소중하다. 이러한 윤리적 관념이 지방과 국가에 확장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의 운영과 공존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입약조(鄉立約條)』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지방에서 위세를 부리는 토호세력에 경고하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즉 ‘효’와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국가공동체로 확장된 것이다.

김상현(2020)은 『향입약조(鄉立約條)』의 규정들로 가족공동체의 도덕적인 모습과 국가의 공권력에 상응할 피치자들의 태도를 정리한다. 『향입약조(鄉立約條)』는 가족, 지방, 국가의 업무를 다루는 영역에 필요한 규칙들을 정한다. 규범의 전반을 다루는 극벌, 중범죄를 고발하고 향촌에서 추방하는 상벌, 일반적인 윤리를 다루는 중벌, 향약 집회의 규정을 다루는 하벌 등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이 도덕적인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처벌과 관련된 『향입약조(鄉立約條)』의 규정들은 지방이나 피치자들의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이 미약할 때 지방의 세력들이 폭주하면 백성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에 부여된 처벌권은 도덕성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이는 피치자들이 규범을 준수하여 스스로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가족공동체와 지방을 도덕성에 기반한 자치로 운영하되, 과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여 한계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김상현(2020)은 퇴계가 『향입약조(鄉立約條)』의 규범적·실천적이며 직관적인 내용들을 통해 『대학(大學)』의 8조목이 가진 함의를 피치자들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지방의 피치자들의 성숙한 인격이 가족공동체의 윤리를 확립하고, 이것이 국가공동체의 윤리로 확장되어 평화로운 국가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군신의 권력분립에 상응하는 국가와 지방의 상호존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퇴계가 생각한 통치모델이 실현되려면 치자와 피치자 각자가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치자와 피치자, 국가와 지방이 상호존중 관계에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는 ‘인’한 성격의 치자가 피치자의 덕성 함양을 하고 권력을 분립하며, 일방적인 통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향입약조(鄉立約條)』는 피치자들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성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한다. 효를 지키고 이를 통해 ‘인’을 권장하는 가족공동체가 많아지면 통치자인

임금 역시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가에 ‘인’을 구현하기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仁民’의 자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慈愛’의 자세와 같기 때문이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피치자들은 임금과 국가의 권한을 존중하되, 임금은 백성들을 자식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치자와 피치자가 유기적이며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을 때 퇴계의 정치개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4장. 플라톤과 퇴계 이항의 비교

플라톤과 퇴계는 인간의 덕성과 정치개혁을 연결한다. 플라톤과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여 각자가 함양할 수 있는 덕과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한다. 이들이 설정한 수양 방법 역시 치자와 피치자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치자와 피치자 각자에게 어울리는 덕목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자·피치자의 구분은 각자의 덕목과 통치방식이 유기적이며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치자의 일방적인 통치, 피치자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간에 덕을 함양하며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데 소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치자와 피치자는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면서 이상적인 통치모델을 형성한다.

플라톤과 퇴계에게서 차이점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각자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의 고대 그리스는 대중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이었다. 치자와 피치자 모두 정치 참여와 수양의 주체가 되었다. 반면에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과 서열이 엄격한 조선이라는 정치적 배경에 있었다. 조선의 피치자들은 정치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수양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즉 플라톤과 퇴계의 차이는 피치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수양의 가능성 여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 1절. 이상적인 인간

플라톤과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상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은 각자를 훌륭하게 만드는 덕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의 구현의 기반이 된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에서 측정의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혜를 통한 선악의 분별은 쾌락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대중들에 대한 비판이다. 대중들은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간, 즉 피치자로 있는 대중들이 나쁜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에서는 철학적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제시된다. 철학적 지혜는 구체적 행동의 선악을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 좋음 그 자체로 이끄는 지

혜를 탐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철학적 지혜는 국가의 운영에 적용되면서 국가 전체가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철인이 통치자가 됐을 때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철인은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본으로 하여 국가와 개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구체적 행위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대중들과 국가 전체에 올바른 것의 틀을 구현하는 철인의 조화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인’을 인식하고 구현할 ‘성인’을 이상적인 치자로 생각했다. ‘인’은 사랑의 기반, 마음의 본래면모가 된다. 이 ‘인’을 구하는 것이 유교의 관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인의예지’와 같은 사덕을 통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인의예지’는 천지의 원리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천인상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천인상응으로 인해 ‘인’이 인간의 구체적 행위에서 사람을 낳고 기르는 마음의 작용의 근거가 된다. 성인은 이 덕목들을 성취하면서 본성을 실천할 주체가 되고, 사랑을 모든 인간과 천지만물에 이르도록 한다. 퇴계는 이 원리를 임금에 적용한다. ‘인’한 임금은 자애의 자세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돌보고, ‘인’을 정치적·사회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효(孝)’는 피치자들을 윤리적으로 유지하는 규범이 된다. ‘효’는 부모의 자애에 부응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인격을 구현하는 기본이 된다. 퇴계는 피치자들에게 ‘효’의 실천적인 성격을 부각한다. 모든 피치자들에게 ‘인’을 터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는 ‘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보다 더 직관적이고 실천적인 ‘효’를 덕행의 기본으로 삼고 가족공동체를 윤리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치자와 부모의 입장에서 중요한 ‘인’, 피치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중요한 ‘효’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올바른 정치의 구현에 필요한 것이 된다.

플라톤과 퇴계는 치자와 피치자의 층위를 구분하여 이상적인 인간, 이에 필요한 수양의 방식들을 설정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과 수양의 덕목들은 일방적·맹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치를 구현한다. 플라톤과 퇴계의 차이점은 피치자들의 정치참여 여부와 집단의 구성 여부에서 나타난다. 플라톤은 민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피치자들 개개인에게 집중한다. 민주정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개인이 선악을 구분해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퇴계는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당시의 백성들을 개인으로 세분화시키기보다는 집단으로 재구성했으며, 이 집단에 ‘효’라는 덕목을 강조해 위계질서를 강조했다. 즉 플라톤보다 정적인 피치자 집단을 선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절. 수양 방법

플라톤과 퇴계는 이상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수양의

방법은 피치자들이 선악을 구분하고 질서에 있게 하는 교화와 강제에 토대가 된다. 치자들은 수양을 통해 피치자들과 조화에 있게 되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수양의 방법은 이상적인 인간들이 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한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에서 덕과 일체화된 지혜를 통해 대중들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덕과 일체화된 지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선의 보편적인 본질에 대한 앎을 통해 현상의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논의는 선악의 구분으로 훌륭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삶을 성찰하라는 요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덕의 교육은 민주정에 참여하는 그리스의 피치자들을 도덕적으로 만들고 절제의 상태에 있게 한다. 『국가』에서는 지성에 의한 성찰을 통해 인간을 본질로 이끄는 교육이 제시된다. 이 지성은 인간을 좋음의 이데아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좋음의 이데아는 강제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통치하는 철인은 수양하는 자세, 즉 신성한 지성으로 자신의 혼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 신성한 행위를 하는 영혼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자기 배려’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건전한 관계로 ‘좋은 것’을 구현하고자 한다. 수양의 방법에서도 나쁜 것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대중들과 국가에 ‘좋은 것’을 구현하는 치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수양의 기본이 되는 ‘경(敬)’을 제시한다. 이 ‘경’은 학문과 인심이 융성한 시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었다. ‘경’은 유교의 핵심인 ‘인(仁)’에 근거하여 욕망과 사사로운 감정을 제거하는 데 핵심을 두었다. ‘인’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경’의 자세에 입각하여 ‘성학’을 수양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절대선인 ‘리(理)’를 찾고자 한다. 퇴계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고 사물을 연구하는 ‘거경궁리(居敬窮理)’, 이 지식을 직접 실천하는 ‘역행(力行)’을 제시한다. 이러한 퇴계의 논의는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반면에 퇴계는 피치자들에게 ‘효’를 실천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퇴계는 이를 위해 실천 규범을 제공한다. 조상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 지역 어른들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는 태도, 이러한 도덕적인 태도를 국정에 임할 때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치자의 ‘인’의 구현을 위한 정치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피치자의 태도가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과 퇴계의 수양 방법이 가진 차이점은 피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피치자들이 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주체로 봤다. 그리스의 피치자들은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능동적으로 덕성 함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퇴계는 조선의 피치자들을 수양

의 ‘주체’가 아닌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교는 수양하는 이는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으나, 조선의 위계적인 정치 질서를 생각한다면 피치자들은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피치자들을 질서 있게 하는 규범이 강조된다.

### 3절. 이상의 현실적 구현으로서의 통치모델

플라톤과 퇴계는 각자가 구상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다. 플라톤의 철인통치나 퇴계의 성군의 덕과 같이 인간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과 퇴계는 자신들이 가진 이상적인 정치이론을 현실적인 층위에 연결하여 이상적인 통치 모델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

플라톤은 『편지들』에서 인간의 교화와 법치를 통한 정치개혁을 연결한다. 우선 플라톤은 피치자들의 습속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혜의 배분인 법률은 피치자들이 도덕적일 경우 간소화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피치자들이 도덕적이지 않을 경우 법률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치자들이 도덕적일수록 법에 의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법의 최선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러한 피치자들의 태도가 최선의 법에 근거한 법치를 구현할 원동력이 된다. 치자 역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자발적인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했다. 철인의 덕성과 정치권력의 결합에 따라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이 법을 존중함에 따라 진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의 4조목에서 임금의 직접 모범이 되어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관직에 진출하려는 선비들과 백성들의 도덕의 기준을 높일 수 있으며 간신들의 교화도 가능해진다. 5조목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한 군신의 권력분립이 나타난다. 퇴계는 혼란스러운 조선의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임금, 대신, 대간의 권한과 역할을 분립시켰다. 이 분립된 권한을 통해 치자들이 각자의 직무에 충실했을 때 이상적인 통치모델이 실현된다. 또한 퇴계는 6조목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 수양을 지속해야 하며, 인애의 정치의 구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계는 『향입약조(鄉立約條)』에서 가족공동체의 윤리가 국가공동체의 윤리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와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개념이다. 피치자들의 입장에서 ‘효’를 실천하는 것이 ‘인’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에도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다. 퇴계는 『향입약조(鄉立約條)』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의 공권력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가 상응하면서 평화로운 국가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과 퇴계는 이상적인 통치모델을 통해 각 계층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플라톤과 퇴계의 이상적인 통치모델의 기능의 차이 또한 나타난다. 플라톤의 법치는 권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윤리를 부과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퇴계의 군신의 권력분립은 권력 제한의 기능만 가진다. 앞서 언급했지만, 퇴계는 정치적인 논의보다 임금의 수양을 통해 성군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5장. 결론

본 연구는 플라톤과 퇴계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과 덕성 함양, 치자와 피치자의 유기적·상호보완적 관계, 이상적인 통치모델의 형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비교했다. 플라톤과 퇴계가 논의한 덕성 함양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적인 인간과 덕목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상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권력관계는 치자들에게 포용적인 모습을 요구할 것이며, 피치자들에게 질서 있는 모습을 요구할 것이다. 치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피치자들을 통합해야 하며,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일방적이라면 피치자에 대한 압제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피치자들은 치자와의 교감이 필요하다. 피치자들이 무절제하고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고자 한다면 공동체 전체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자는 피치자들을 인정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 주되, 피치자들은 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여 질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진다.

둘째, 이상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수양의 방법을 성숙한 국가의 등장과 결부시킬 수 있다. 국가의 구성원인 인간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며 법률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이 국가와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치자와 피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수양을 통해 이상적으로 된다면, 국가 또한 성숙해질 것이다. 즉 이상적인 인간 개개인, 안정적인 가정과 지역, 성숙한 국가 순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결부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현실적 이상으로서의 통치모델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통치모델은 앞서서 했던 이론적인 논의들을 현실의 정치체제와 결부시키면서 정치개혁을 현실화한다. 치자들이 가진 권력을 제한하고, 치자와 피치자를 막론한 모든 구성원들의 덕성을 함양하여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바라보기에 플라톤과 퇴계의 논의가 가진 시대적인 한계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과 퇴계는 규범적·도덕적인 인간의 덕성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의 정치권력에 연결하여 정치개혁을 도모했다. 즉 '정치의 기반, 정치에 대한 참여, 질서의 운용과 유지'라는 일련의 정치과정과 여기에 참여한 규범적·도덕적인 인간의 덕성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정치과정이 폐쇄적이며 불합리한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무절제한 모습은 플라톤과 퇴계의 논의가 현재에도 적실성을 가진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플라톤

Cropsey, Joseph·Strauss, Leo 저, 김영수 역. 2010. 『서양정치철학사1』. 서울: 인간사랑.

Kelsen, Hans 저, 김선복 역. 2011. 『正義란 무엇인가』. 서울: 책과사람들.

Plato 저, 강성훈 역. 2012. 『프로타고라스』. 서울: 이제이북스.

Plato 저, 김주일·강철웅·이정호 역. 2009. 『편지들』. 서울: 이제이북스.

Plato 저, 박종현 역. 2005. 『국가·政體』. 경기: 서광사.

Plato 저, 박종현 역. 2009. 『법률』. 경기: 서광사.

### 퇴계 이황

西田幾多郎·高橋進(니시다 기타로·다카하시 스스무) 저, 최박광 역. 2019. 『선의 연구/퇴계 경철학』. 서울: 동서문화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200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서울: 예문서원.

작자 미상. 『주역(周易)』.

주희 저. 『대학(大學)』.

주희 저. 『중용(中庸)』.

최영진 저. 2019. 『퇴계 이황: 사단칠정론·성학십도·무진육조소』. 경기: 살림.

퇴계 이황 저. 『성학십도(聖學十圖)』.

퇴계 이황 저.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편. 2016. 『선비, 인을 품고 의를 걷다』. 서울: 예문서원.



한명희 저. 1973. 『퇴계이황선생문집 10』. 서울: 경인문화사.

논문

플라톤

김비환. 2010. “플라톤 정치사상에서 철인지배와 법치의 상보적 통합성: ‘좋은 법질서’(eunomia)를 향한 철학적 충동”, 『법철학연구』. 13권 3호, 149-178.

김상돈. 2014. “도덕적 지식의 성격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탐구”, 『윤리교육연구』. 35권, 435-464.

김영균. 2003. “프로타고라스편에서 “덕의 단일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 『철학연구』. 62집, 5-27.

김윤동. 2011. “플라톤의 철인왕 통치”, 『철학연구』. 117집, 1-33.

김인근. 2014. “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혼합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53권 2호, 67-90.

박수인. 2018. “플라톤이 『법률』에서 받아들인 정치적 자유의 의미: 아테네 민주정의 자유 개념에서 수용한 것과 거부한 것”, 『정치사상연구』. 24집 2호, 9-35.

박수인. 2019. “플라톤의 『법률』에서 군주정의 요소는 무엇인가?: 플라톤의 혼합 정체 이론에 내포된 법치의 특성”, 『서양고전학연구』. 58권 2호, 101-130.

박수인. 2020. “플라톤의 철학적 주체성에 대한 푸코 식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54집 5호, 5-30.

오수웅. 2015.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 개념추론과 정치교육적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25집 1호, 1-24.

임태평. 1994. “플라톤의 철인-통치자의 교육”, 『교육철학』. 12호, 147-276.

- 이상인. 1999. “플라톤의 국가철학: 국가에 나타난 개인-국가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45집, 165-191.
- 이준경. 2010.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 드러난 도덕교육의 아포리아에 관한 고찰: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과 그 교육적 관계에 대하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4호, 153-180.
- 장지원. 2011. “『제7서한』에 나타난 플라톤의 교육론”, 『교육사상연구』. 25권 2호, 201-217.
- 장준호. 2010. “플라톤의 인치와 법치: 철인통치의 법치화”, 『OUGHTOPIA』. 25권 1호, 65-99.
- 정주환. 2016. “그리스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40권 1호, 159-182.
- 최한빈. 2017. “인성교육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과 비판: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국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권 1호, 233-252.
- 한상수. 1999. “플라톤의 법치국가론: 『법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권, 59-80.
- Dimas, Panos. 2008. “Good and pleasure in the PROTAGORAS”, 『Ancient Philosophy』. 28, 253-284.
- Gagarin, Michael. 1969. “The Purpose of Plato’s Protagora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0, 133-164.
- Stocks, John Leofric. 1913. “The Argument Of Plato, *Protagoras*, 351b-356c”, 『The Classical Quarterly』. 7, 100-104.
- 퇴계 이황  
강보승. 2021. “퇴계 이황의 역사의식과 경제사상 및 그 구현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집, 7-40.

- 강선보·장지원. 2007. “공자와 플라톤의 교육목적론 비교 연구: 『論語』와 『국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집, 221-253.
- 금장태. 1999. “퇴계의 仁 사상과 人道정신: 『仁說圖』에 대한 해석”, 『퇴계학』. 10호, 1-10.
- 김덕균. 2021. “효자전, 감성과 이성의 사이: 조선 초 효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5집, 19-49.
- 김상현. 2020. “퇴계의 향약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자치조직 연구”, 『대동철학』. 93집, 41-78.
- 김승태. 2011. “互發의 관점으로 본 이황 철학의 가치관 이해”, 『대동철학』. 55집, 193-213.
- 김익수. 2008. “退溪의 孝思想과 家族文化의 형성: 한국교육철학의 기저”, 『한국사상과 문화』. 44집, 265-306.
- 김형찬. 2007. “내성외왕(內聖外王)을 향한 두 가지 길: 퇴계(退溪)철학에서의 리(理)와 상제(上帝)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4집, 3-28.
- 박지현. 2015. “七情과 도덕성: ‘聖인의 七情’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0호, 1-27.
- 손병욱. 2013. “퇴계 이황의 居敬窮理 사상에서 본 靜坐修練의 위상”, 『퇴계학논집』. 22집, 7-38.
- 서근식. 2017. “퇴계 이황(退溪李滉)의 「천명도설(天命圖說)」과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시작”, 『한국철학논집』. 55집, 97-124.
- 신귀현. 2001. “退溪의 聖君과 플라톤의 哲人王”에 관한 비교 고찰”, 『퇴계학보』. 110집, 203-225.
- 신복룡. 2010. “조선조 주리론자(主理論者)들의 정치적 고뇌: 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정치사상연구』. 16집 1호, 56-75.

- 신현승. 2011. “유교정치학으로서 퇴계의 성학과 정치 담론”, 『퇴계학논집』. 8호, 1-32.
- 오지환. 2015. “퇴계(退溪)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도덕철학적 기반”, 『동서철학연구』. 76호, 135-165.
- 이명수. 2012. “퇴계 이황의 수양론과 대상 인식의 문제”, 『퇴계학논집』. 20집, 7-26.
- 이재룡. 2000. “조선 시대의 법 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동양사회사상』. 3집, 95-121.
- 이재영. 2000. “공자와 플라톤의 비교연구: 성인군주론과 철인군주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3집, 33-64.
- 이진수. 2015. “퇴계 이황의 효실천에 관한 연구”, 『차문화·산업학』. 28집, 1-26.
- 장승희. 2014. “공자사상에서 ‘사랑’의 의미 고찰: ‘인(仁)’의 개념사와 철학적 인간학”, 『윤리교육연구』. 34집, 195-211.
- 최병철. 1989. “「正義」를 中心으로 한 孔子와 플라톤의 比較研究”, 『한국정치학회보』. 10집, 31~69.
- 황상희. 2017.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퇴계학논집』. 21권, 155~182.
- 井上厚史(Inoue Atsushi). 2006. “韓国近代儒敎改革運動における近代的思惟の形成 : 西洋・中国・日本の果たした役割”, 『北東アジア研究』. 10, 67-93.
- 小野進(Ono Susumu). 2010. “儒敎の政治哲学における国家と正義 (justice) (上)”, 『立命館経済学』. 59(5), 45-77.
- 小野進(Ono Susumu). 2011. “儒敎の政治哲学における国家と正義 (justice) (下)”, 『立命館経済学』. 59(6), 45-77.

## Political Reform Initiated from the Cultivation of Virtues: A Comparison between Plato and Yi Hwa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political reform that start from the cultivation of human virtues through Plato's *Republic*, *Protagoras*, and *Epistles* and Toegye Yi Hwang's *Mujin Six Provision Memorial to the Throne*(戊辰六條疏),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聖學十圖), and *Hyang-lip-yak-jo*(鄉立約條) and to compare Plato and Toegye. Both Plato and Toegye distinguish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and present virtues suitable for each class. Plato defines the rulers as philosophers and argues that they should acquire philosophical wisdom. Those who are ruled should be moderate through the wisdom of discerning good from evil. In a situation wherein rule by philosophers is in pl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appears organic and complementary. An orderly state is formed when both the ruler and the ruled faithfully fulfill their duties and the ruled submit to the rule of the wise ruler. Plato attempts to realize his theory with the rule of law. In the rule of law, the law can be simplified by educating the ruled. The rulers set an example and have a voluntary will to reform. Both the ruler and the ruled respect the law and maintain the ideal model of governance. Toegye defines the rulers as sages and suggests that they should acquire 'In(仁).' Those who are ruled should keep the community moral through 'Hyo(孝).' Sage-kings who will implement 'In' politics set an example and harmonize with the ruled who practice 'Hyo.' Through this,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and the voluntary norms of the ruled correspond. Order in the national community is maintained when the rulers separate powers and observe work ethics and the ruled comply with voluntarily created norms and respect the state's law enforcement. To compare Plato and Toegye, they have similarities in that both believe that the rulers and the ruled cultivate human virtu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is organic. And both Plato and Toegye try to keep the state in order through political reform.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ces given their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Plato emphasizes

reflection by viewing the ruled as subjects who can participate in politics, but Toegye emphasizes norms as he views the ruled as just objects.

【Keywords: ideal human beings, cultivation of moral virtues, political reform, comparison between Plato and Yi Hwang】